

“유럽 중심에 ‘한국학연구소’는 상징적 의미”

루벤대학에 ‘연구소’ 설립 주도
아드리안 카르보네 교수

“벨기에는 작은 나라지만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기관들이 수도인 브뤼셀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를 높이는 데 벨기에는 매우 전략적인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벨기에 루벤대학에서 ‘한국학연구소’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아드리안 카르보네 문학부 교수(31)는 지난달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브뤼셀에 설치한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화 보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1425년 설립된 벨기에에서 가장 오래된 루벤대학에서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벨기에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카르보네 교수는 올가을 루벤대학 문학부에 설립되는 한국학연구소의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6박7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프랑스 소르본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그는 프랑스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교(INALC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한·일, 북·일 관계다. 그는 고등학교 때 혼자 일본으로 건너가 1년간 학교를 다녀 일본어에도 능통하다. 2014년부터 루벤대학 문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카르보네 교수는 “늦어도 올해 11월 이전에는 한국학연구소가 설립될 것”이라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루



아드리안 카르보네 교수는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루벤대학에 한국학연구소가 설립되는 것은 유럽 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준현 기자

1987년부터 한국어·문화 수업
한국학 전문 연구기관은 처음
늦어도 올 11월까지 설립될 것
이제는 한국학과 개설이 목표

벤대학에 한국어·문화 수업은 1987년부터 있어 왔지만 벨기에에서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육·연구기관은 한국학연구소가 처음이다.

루벤대학은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자료실 설치를 지원하는 ‘윈도우 온 코리아’에도 선정돼 2011년 12월부터 약 5000권의 책을 기증받았다. 현재 루벤대학 도서관에는 약 8000권의 한국 관련 도서가 소장돼 있다. 그는 “벨기에에서 한국 관련 서적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다”며 “1년에 회비 30유로(약 3만6000원)만 내면 루벤대학 학생이 아니어도 누구나 도

서를 대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학연구소는 내년 9월 학기부터 ‘한국학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카르보네 교수는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준다”며 “앞으로 각 학부 커리큘럼에 한국학을 선택과목으로 넣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벨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문송(문과여서 죄송)’ 상황입니다. 다른 학과와 병행한다면 모를까 한국학 자체만으로는 학생들이나 부모들에게 인기가 없고,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일본학이나 중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한국학 프로그램을 먼저 개설한 것입니다.”

카르보네 교수는 “최근 몇 년새 유럽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학과 개설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